

사업체패널과 고용

이 규 용*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는 격년조사로 2005년에 첫 조사가 이루어진 후 2013년까지 5차례 수행되어 왔다. 패널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업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체패널조사의 설문은 고용현황 및 고용관리, 보상 및 평가, 인적자원관리 및 작업조직, 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 기업복지 및 산업재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고용·평가·보상·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체계를 평가하고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 응답거부에 따른 표본이탈 등으로 표본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를 포괄하는 사업체패널조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는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내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의 변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한국의 고용관계를 규명하는데 기여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 단위의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 분야에서 연구의 확장이 요구되어 왔다. 사업체패널조사의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고용구조의 변화,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격차, 여성고용, 노동이동 등 사업체 단위의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영역의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호에 실린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3개의 글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기초하여 201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획한 보고서에 수록된 일부 원고를 필자들이 재정리한 것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사업체-근로자 연계패널을 구축함으로써 가용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일자리 변동에 대한 연구는 사업체패널조사 1~5차년도 자료와 「고용보험 DB」의 피보험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eeky@kli.re.kr).

자료를 연계한 사업체-근로자 연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멸을 측정하고 일자리 변동(job flows)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채용과 이직을 측정하여 노동력 변동(worker flows)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자리 변동에 대한 분석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 있다.

고용의 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이며 측정방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상대적으로 사업체의 관점에서 이를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번 호에 실린 글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체 수준에서 고용의 질을 파악하고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근로여건, 고용안정,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고용평등, 공정한 갈등해결시스템 등 6개 항목과 총 17개의 세부지표를 통해 고용의 질 지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의 질 지수 분포의 중위 값이 다소 커지고 있고 분포 또한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도 의미가 있지만 사업체 단위에서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용의 질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 연구는 노동조합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이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방법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특성이 고용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고용문제를 해소하는데 적합한 노동조합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용문제의 발생과 함께 노사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조합의 특성과 고용변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의 틀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많은 패널조사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널자료를 생산하는 각 기관들은 패널자료의 활용도 제고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질의 패널데이터 생산과 함께 패널자료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연구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보다 다양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패널자료의 품질개선이나 정책이슈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패널자료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15년에 대대적으로 사업체패널조사의 설문 문항을 재정비하고 표본도 재구축하였으며 표본규모도 확대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패널조사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체 환경 변화를 보다 잘 포착하여 현실을 보다 잘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패널조사의 품질개선이 보다 활발한 연구 및 정책자료 생산의 밑거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KLI**